

함께 가는  
성모발현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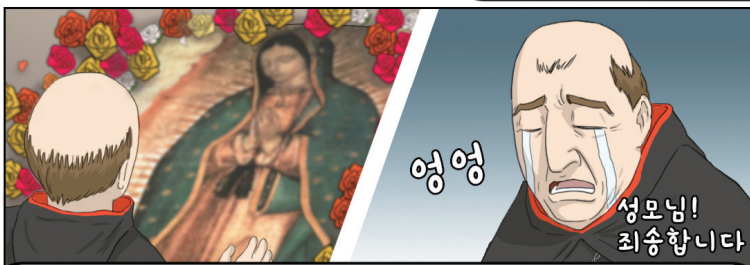
제 4 화  
아메리카 대륙의 순화성인  
과달루페의 성모

글·그림 : 송현철 안토니오



1531년 12월 9일 후안 디에고는 성당에 가기 위해 테페악 산을 넘어가고 있었어요. 그때 갈색 피부의 원주민 여성의 모습을 한 성모님이 나타나 멸망한 아즈텍 언어로 “이 곳에 성당을 지으라”고 말하고 사라졌어요.

스페인에서 온 후안 데 수마라가 주교에게 전했으나, 주교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.



장미꽃을 담은 티마를 펼치자 성모님의 그림이 나타났어요. 게다가 한 겨울에 핀 장미꽃은 다름아닌 주교의 고향인 스페인에서만 볼 수 있는 종이였어요. 장미꽃과 티마에 새겨진 그림을 보며,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성모님의 요청을 믿지 않고 무시한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 용서의 기도를 바쳤어요.

